

# 혹시 우리 회사도 데이터 호더?

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지  
5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

넘쳐나는 데이터에 둘러 쌓여 계시지 않나요?  
무작정 쌓아 놓기만 하면 민첩하게 움직이기  
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.  
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.



**아래의 5가지에 해당된다면,  
데이터 호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!**

## 1 “만약을 위해” 모든 것을 저장한다?

모든 데이터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**75%** 기업 내 데이터는 75%는  
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.<sup>1</sup>



## 2 데이터의 분류와 정리가 어렵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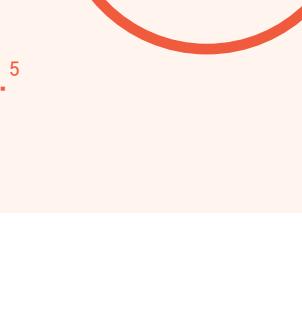
오디오, 영상, 이미지, 소셜 미디어 스트림, IoT 센서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는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 적절한 기술을 조합하여 데이터 카오스를 컨트롤해야 합니다.



**85%** 이상의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.<sup>2</sup>

## 3 필요할 때 데이터를 찾기 힘들다?

데이터 폭증을 억제하지 않으면 스토리지 비용이 치솟게 됩니다. 서둘러야 합니다!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책 설정을 통해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비롯해 데이터의 사용, 보호, 보존, 삭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

하루 평균 **2.5** 시간이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소비되고 있습니다.<sup>3</sup>

## 4 스토리지 비용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?

분류되지 않은 데이터 파일은 쌓이기 쉽고, 결국 ‘다크 데이터’로 얼룩져 식별, 활용, 보호, 제어가 어렵게 됩니다. 메타데이터와 같은 핵심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적재 적소에 두는 데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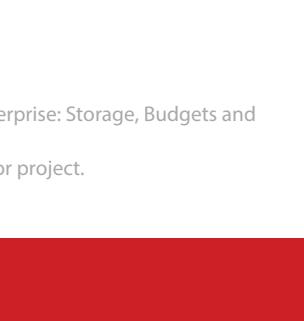


**54.8%** 의 기업이 비용과 예산을 가장 큰 IT 고민사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.<sup>4</sup>

**혹시 데이터 호더가 될 징후를 발견하셨다면,  
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.**



해답은 차세대 **스토리지 인프라**에 있습니다.  
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정형 비즈니스 데이터를  
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활용하며,  
보호하고 세어할 수 있습니다.



업무 시간 중 평균 **8.3%** 이상이 핵심 업무 대시 데이터 품질 향상에 소비되고 있습니다.<sup>5</sup>

차세대 스토리지 시스템의 가치를 확장해 보십시오.  
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 
메타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비정형 비즈니스 데이터의  
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**리포트 확인하기 >**

**다음 단계를 위한 참고 자료**

Hitachi Content Platform은 비용 효율적인  
오픈소스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데이터를  
통합함으로써, 지능형 정책 기반 관리를 통해 방대한  
데이터를 조작하고 보관하며 관리합니다.

**자세히 알아보기 >**

차세대 스토리지 시스템의 가치를 확장해 보십시오.  
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 
메타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비정형 비즈니스 데이터의  
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**리포트 확인하기 >**